



중기중앙회-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제 확립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왼쪽부터)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롯데호텔, 어버이날 기념 사회공헌활동
 롯데호텔은 어버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샤롯데봉사단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샤롯데봉사단은 지난 7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희망드림터 4호점' 성이시돌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어 8일에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위치한 '희망드림터 2호점' 성가요양원에서 1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롯데호텔



한세에스24홀딩스, 어린이집서 어버이날 행사
 한세에스24홀딩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엄마아빠 예쁘게 봐주세요'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한세에스24어린이집이 위치한 여의도 한세실업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세에스24홀딩스 김석환 대표의 자녀를 비롯한 원생 30여명이 참석했다. /한세에스24홀딩스



맥도날드, 어버이날 어르신께 행복의 버거 증정
 맥도날드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께 행복의 버거 200세트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지역 내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부산 지역 맥도날드 직원들의 선행에서 비롯됐다. 회사도 이와 같은 직원들의 선행에 동참하는 의미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의 버거 200세트를 제공했다. /맥도날드

청호나이스 자연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24일까지 선착순 300명 신청접수
 청호나이스는 환경부 후원으로 '자연사랑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오는 6월6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및 유치부 어린이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다. 그림 그리기 대회는 대상인 청호나이스 회장상과 환경부장관상에 상장과 장학금 각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해 우수 작품들에 상장과 소정의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4일까지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책임은?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Q : 신용이 좋지 않은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A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피해자 C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A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B가 위 6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A가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별도의 체크카드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써 버렸다. 이에 C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대신 A를 사기방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A를 상대로 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에게 사기방조 및 횡령죄가 성립할까?

A : A가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 A는 B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A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만약 A에게 사기방조죄가 성

립한다면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C가 A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C와 A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가 은행에 대하여 송금·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A는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이처럼 A가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C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A와 C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어, A가 이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면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도12199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A에게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본다면 A와 C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되게 A와 같은 계좌주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A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애경산업, 한부모 가정 등에 20억 상당 물품기부

전국 미혼모시설 등 540여곳에
 삼푸·바디워시 등 생필품 전달

애경산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사랑나눔 물품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랑나눔 물품기부 전달식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됐다.

애경산업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삼푸·린스, 바디워시, 비누 등 생활 필수용품을 전달했다. 전달한 애경산업의 생활 필수용품은 전국의 복지시설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미혼모시설, 한부모 가정 등 540여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물품기부 행사를 시작해 올해 총 41건의 기부를 진행했



애경산업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나눔 물품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애경산업 송기복 상무(왼쪽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연순 사무총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며, 이는 소비자가 기준으로 약 136억 원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업의 이념인 사랑과 존경을 실천

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인사

◆행정안전부 > 국장급 전보 △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진명기

◆DS투자증권 > 부문장 선임 부부장급 △S/T 부문장 박태동 △경영지원부문장 최기섭 > 전무급 부부장 선임 △IB사업본부장 박정수 △채권금융본부장 윤덕용 △헤지펀

드본부장 위상식 > 사무급 본부장 선임 △법인영업본부장 신두영 △자산운용본부장 신호섭 △리스크관리본부장 김명배 △경영지원본부장 김영진

부음

▲진명길씨 별세, 진경천(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장)·경희·경화씨 부친상 = 8일,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 101호, 발인 10일 오전10시, 장지 실로암공원묘원, 051-601-6791

▲도상목씨 별세, 노재호(GS건설 싱가포르지역본부장 상무)씨 빙부상 = 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지하2층), 발인 11일 오전 8시, 02-440-8800